

■ 전문의 칼럼

최신 알츠하이머 치매 예방 및 치료

PET Scan → 베타아밀로이드 확인 → Aduhelm 베타아밀로이드 제거 주사

PET Scan → No 베타아밀로이드 → 2년 후 재확인 PET Scan

근래에 미국 FDA에서 알츠하이머 치매의 원인인 베타아밀로이드를 제거하는 치매 치료제를 허가하였다.

베타아밀로이드는 변형된 일종의 단백질이다. 이러한 변형된 단백질이 뇌에 쌓이면서 염증을 유발시키며 뇌세포의 사멸을 유도한다. 뇌세포의 사멸과 더불어 환자의 인지능력 또한 저하된다. 하지만 PET Scan으로 초기에 알츠하이머 치매가 시작되기 전, 베타아밀로이드가 축적되는 것을 초기에 진단하여 베타아밀로이드가 축적되는 것을 예방하여 치매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다.

치매란 정상적으로 활동하던 사람이 지적 능력을 상실하는 모든 경우를 뜻 한다. 즉 기억력, 사고력 등 뇌의 능력이 떨어지는 모든 뇌 질환을 통털어 일컫는 말이다. 그 중 알츠하이머 치매는 베타아밀로이드라는 변형된 단백질이 뇌에 축적되어 인지능력의 저하가 오게 되는 질병이다. 변형된 베타아밀로이드가 염증을 일으키며 뇌세포를 사멸시키고 뇌세포의 사멸과 더불어 환자의 인지능력 또한 떨어진다. 일단 치매 증상이 생기면 이미 베타아밀로이드가 오랜 기간 축적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알츠하이머 치매의 발병 원인은 뇌 조직에 '베타아밀로이드'라 불리는 변이성 단백질의 축적과 신경섬유질의 다발성 병변에 의하여 생기는 데 이러한 변형된 단백질과 신경섬유질이 생기는 원인은 아직 뚜렷하지가 않다.

현재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 약물은 없다고 보면 된다. 기존의 모든 약물은 베타아밀로이드 또는 신경섬유질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뇌세포의 사망과 더

불어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호르몬의 감소가 오는데 기존의 모든 치매 약은 이 부족한 아세틸콜린 신경호르몬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충해주는 역할만 한다. 원인 치료가 아닌 증상 치료다. 약을 꾸준히 잘 복용하여도 베타아밀로이드는 지속적으로 축적이 되고 인지장애 또한 계속 나빠진다.

반면, 아두헬 (Aduhelm)이라는 치매 치료제는 기존의 증상치료제와는 달리 현재 알츠하이머 치매의 원인으로 알려진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을 뇌에서 제거 해 주는 약물이다. 따라서 알츠하이머 치매 증상이 시작되기 전, 특히 집안 내력이 있는 경우 뇌 PET Scan으로 베타아밀로이드가 뇌에 축적되어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베타아밀로이드가 확인 되었을 경우,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 전, Aduhelm을 사용하여 베타아밀로이드를 제거한다. 예방 치료인 것이다.

위내시경 또는 자궁암 검사를 주기적으로 시행하여 암을 일찍이 진단하여 치료하듯이 PET Scan을 주기적으로 사용하여 알츠하이머 치매를 조기진단하고 또 베타아밀로이드 제거 약물을 주기적으로 투여하여 알츠하이머 치매 예방이 가능해 진 것이다. 이제는 치매로부터 자유로워 질 수가 있게 되었다.

스템스 통증병원 & PRP 센터
박재우 MD
(714) 389-7000
4840 Irvine Blvd. #203
Irvine, CA 92620(시온마켓 몰)